



가정예배

202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소양교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순서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430장 (통일 456장) ----- 다 같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신대로 주와같이가겠네
4. 옛 선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때까지 주와같이건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 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가 리

기 도 ----- 말 은 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38편 3절 ----- 다 같 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말 씀 ----- 응답하시는 하나님 ----- 말 은 이

찬 송 ----- 찬송가 336장 (통일 383장) ----- 다 같 이
환란과 핍박 중에도

1.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 각 할 때 에
2.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3. 성도의 신앙 본 받아 원수도 사랑 하겠네 인자한 언 어 행 실로

기쁨이 충만 하 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서 죽도록 충성 하겠네
죽어도 영광 되 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서 죽도록 충성 하겠네
이 신앙 전파 하 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 서 죽도록 충성 하겠네 아 멘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은 단어라도 거꾸로 읽으면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살’을 가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를 반대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인생의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은 나쁘지만 어떤 시각,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고난의 순간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의 반복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환란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어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소양교회의 지난 71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며 어떤 고난도 극복했기에 오늘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은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결국 모든 고난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설명절 맞아 한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이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허무하고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능력있는 응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의 기도는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꿉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